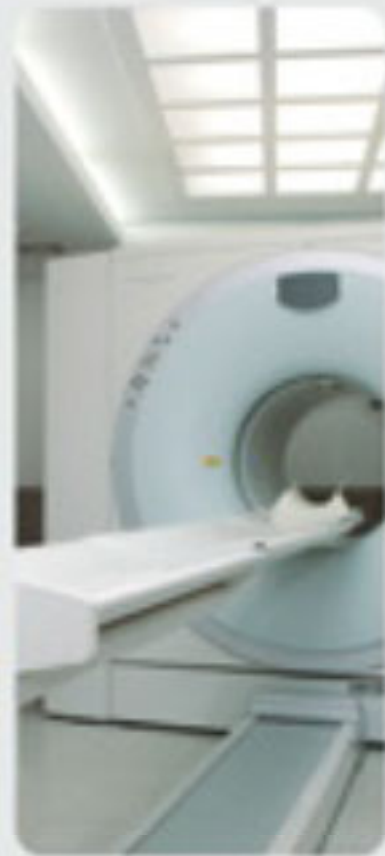


한 분을 위한 믿음직한 평생건강 주치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스마트한 당신, 건강검진도 스마트하게



##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는

-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건강 프로그램
- 친환경 고객 휴식 공간과 감성적 친절 서비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외래 진료 연계 시스템

순천향대학교병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건강증진센터 Health Promotion Center

전화예약 : 02)709-9160, 9161 FAX : 02)794-7451

고객상담 : 02)709-9156, 9157

인터넷예약 : <http://www.schmc.ac.kr/seoul>



2012년  
4월 15일  
제 11 호

**MBC**  
mbcsau.com

社友會報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단법인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김수량 • 편집인 백하현 • 편집장 한박무

## 제7기 회장에 김수량 회원 선출

올해 예산 2억 8,500만원 확정, 동호회 단합대회 집중지원  
상임부회장 백하현, 총무이사 박종규 감사에 임국희 이해결

MBC사우회 신입회장에 김수량 기술 부문 이사가 선출됐다.

MBC사우회는 2월 27일 (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수량이사를 제7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16년 정기총회까지 4년이다.

총회에서는 또 2011 회계연도 결산과 2012년도 수지예산 2억 8,500여만원을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2012년도 예산중 수입은 보험업선 수입이 1억 4,500여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은 경조비가 6천여만원, 동호회활동 지원비가 3천여만원, 정기총회 진행비와 회보발간비가 2,500여만원으로 중점을 이루고 있다.

김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사우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회장은 “사우회를 회원들의 안락처럼 편안하고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으며, 임원들의 임기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2013년 정기총회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김회장은 MBC에서 제작기술국장, 기술이사를 역임했으며 마산MBC사장을 거쳐 현재는 공주영상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사우회 상임 부회장에 관리부문 백하현 전총무이사, 총무이사에 박종규 기술부문 이사를 선임했으며 최준식 사무처장은 유임시켰다.

한편 각부분 부회장과 이사등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이견세(편제) 신대근(보도)  
임주완(ANN) 김용빈(기술)  
이용구(업무) 백하현(관리)

감사 임국희(ANN) 이해결(업무)

이 사

(편제) 김상옥 신낙균 (보도) 김승한 윤홍섭  
(ANN) 양진수 박민정 (기술) 박종규 김세하  
(업무) 한영희 박수부 (관리) 유홍철 신견욱  
(미주) 이은혜

## 정관·경조개정 소위원회 첫 모임

정관문제점 집중검토 소위 위원장에 이용구 부회장

4월 10일 정동사우회 사무실

정관개정소위원회가 4월 10일(화) 첫 모임을 갖고 정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모임에서는 MBC사우회 정관과 경조규정중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정관개정 작업은 임원들의 임

기등 문제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내

임원임기 현실에 맞게 고치고  
고령화 추세따라  
경조 규정도 개정 추진

년 정기총회때 보고하겠다는 김수량 신임 회장의 약속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경조규정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갈 계획이다. 정관-경조규정개정 소위원회 위원은 신낙균(편제) 김승한(보도) 양진수(ANN) 김세하(기술) 이용구(업무) 신견욱(관리) 이사와 박종규 총무이사(당연직) 등이다.

소위는 첫날회의에서 이용구(업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제2차 회의는 5월16일이다.

신임회장인사

##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약력 ▶

1995년도 제작기술국장  
1998년도 기술이사  
1999년도 마산MBC사장  
2005~현재  
공주영상대학 총장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에 많이 부족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회는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회장들과 임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MBC사우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회원이 무려 1,300여명에 이르는 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조직이 커지면 알게 모르게 행정이 느슨해지고 소외를 느끼는 부문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올해를 사우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해로 삼고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가칭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대에 맞지 않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드러난 임원들의 연임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2013년 정기총회때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 못지않게 사우회도 90세 회원이 네 분이나 계시며 앞으로 계속 늘어 갈 것입니다. 경조규정을 고쳐서라도 원로 회원들의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방 같은 사우회 만들 터

임원임기 등 고칠 게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 내년 총회때 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우회는 회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이상은 사우회를 찾아 오시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사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동호회의 발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우회는 회원들이 주인이고 따라서 그 주인들의 만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갈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편치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사우회 발전에 애쓰신 전임 강영구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4년동안 사우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갈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C사우회 회장 김 수 량





## 동호회 활성화위해 회원 배가 운동 추진 당구 사진 자전거 볼링 모임도 추가설립

**김회장, 4월 6일 동호회장과 오찬 회동**  
김수량회장이 사우회 동호클럽 회장들과 점심을 같이한 자리에서 동호클럽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회장은 4월 6일 등산 낚시 등 동호클럽 회장들과 만나 동호클럽이 활성화 될 때 회원들의 건강도 증진 될 것이라면서 각 동호클럽 회원들의 배가운동을 당부했다. 등산클럽은 매달 두 번째, 네번째 수요일에 서울 근교에 모여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으며 낚시클럽은 5월 2일 시조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조를 기다리고 있다. 바둑클럽도 매

달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10여명의 회원들이 대국을 갖고 있다. 또한 한문공부 동호회도 10여명의 회원이 매주 목요일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논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날 모임에는 등산클럽의 박한성회장, 낚시클럽의 이승문회장, 골프클럽의 김용빈회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회장은 이밖에도 당구 사진 자전거 볼링클럽의 모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 클럽들의 설립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했다.

## 등산 바둑 낚시대회 등 봄철 행사 시작 북악 하늘 길에서 불꽃 대국까지 상반기 대장정

바야흐로 賞春의 계절, 산과 들과 강이 봄의 향기를 내뿜으며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우회 동호클럽도 겨우내 움추렸던 기지개를 켜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 ▶등산 4.18(수)  
북악 하늘 길 3시간 산행
- ▶낚시 5.2(수)  
김포·강화, 사전답사 후 결정
- ▶골프 5.11(금)  
10팀, 충주 중원 골프 클럽
- ▶바둑 6.7(목)  
사우회사무실서 불꽃 대국

가장 먼저 행사를 치른 동호회는 등산클럽, 4월 18일 (수) 삼각산에서 봄철 등산

대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국민대학교 앞을 출발해, 여래사와 북악하늘길을 거쳐 2시간 동안의 산행 끝에 정릉탐방안내소 앞에 도착했다. 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건강도 다지고 친목도 나누었다. 낚시대회는 5월 2일 (수)에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김포·강화 일대를 중심으로 사전 답사 (4/23-월)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골프대회는 5월 11일 (금)에 실시한다. 장소는 충주 중원 골프 클럽.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팀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착순 10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참가비는 신청한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바둑대회는 6월 7일 (목) 오전 10:00 사우회 사무실에서 조별 대전 추첨을 거쳐 대국에 들어간다.

## 등산 낚시 동호회 회장단 개선

등산클럽 회장에 박한성, 낚시클럽 회장에 이승문

사우회 등산클럽 회장에 박한성, 낚시클럽 회장에 이승문 회원이 선임됐다. 등산클럽은 3월14일 북한산 산행을 끝낸 뒤 회의를 갖고 박한성(관리) 총무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에는 이대교(관리) 회원을 선임했다. 김진호(보도) 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김진호 전회장은 2006년부터 7년동안 등산클럽을 이끌어 오면서 1개월 2회, 격주 산행을 정례화 시키는등 등산회원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낚시클럽 새회장에는 이승문(편제) 회원이 선출됐으며 총무에는 김종수(편제) 회

원이 선임됐다. 신임 이회장과 김총무는 젊은 시절부터 낚시에 심취해온 소문난 낚시광 들이다. 신임 회장단은 편제부문의 낚시회원 늘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임 정종국(관리) 회장과 경진근(관리) 총무는 사업상의 이유로 퇴임했다. 한편 골프클럽 총무에는 안재기(보도) 회원이 선임됐다. 신임 안총무는 사우회가 주관한 2011년도 봄철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실력파로 골프회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순천향병원 사우회 회원에 할인 진료

MBC 사원 수준으로 대우 종합건강검진 기본진료비 25만원

MBC와 협진계약을 맺고있는 순천향대학병원이 MBC사우회 회원들에게도 MBC 사원수준의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향대학병원은 41만 7천원 (여성은 47만 8천원)인 종합검진 기본진료 (위내시경 포함)비를 MBC사우회 회원들에게 17만원 정도를 할인해서 25만원에 진료해 주고 있다. 여기에 복부 Adb CT 및 폐 LD CT 촬영, 대장내시경(수면),

심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중에서 1가지를 추가해서 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료는 35만원이며 여성은 골밀도 측정과 체성분검사를 포함해 44만원에 종합검진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 다른 추가 정밀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검진료가 붙는다.

문의 검진팀 정현권 과장  
02)709-9899, 010-9068-9881,

### 사우회클럽



이 종 민  
전 대전MBC 사장

## MBC는 문화방송 이다.

‘산은 산이요(山是山), 물은 물이다(水是水)’란 말이 있는데 이 말 끝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봄은 봄이다’ (春是春)다.

모임이 있다 하면 장소가 대체로 광화문 언저리이다. 청진동, 무교동, 광화문골목길에 먹거리 집들이 많아서이다.

만나기 전에 미리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들려 책구경 실컷 하고 책 한권사는 것도 그 곳에서 만나는 데 한몫 한다.

얼마 전 MBC 몇 몇 사우들 모임 때는 그러지 않고 파사로운 봄 빛 맞으며 광화문 광장을 거닐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은 위대했다.어머님 품 안처럼 따뜻했고 포근했다. 약속 장소로 가며 광화문 길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홀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하며 길을 건너다 교보건물벽에 걸려있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 꽃’ 을 읽으며 MBC도 그러한가 물어봤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했다는데 팬스레 떠난회사에 신경 쓰는 건가? MBC가 친정인데 어찌 무관심하겠어.

MBC에 재직하고 있을 때 일본정부 초청으로 “방송관리” 연수를 받으로 일본에 간적이 있었다.

개발도상국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에 20여개국 방송관리자가 참가한 국제연수였다. 연수과정에 일본인 가정의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 갔었다. 대학교수집이었다.

그래서인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물어 “고려대학교”라 했더니 “아! 데모 잘하는 대학교요.”라 하는 것이었다. 마음이 착잡했었다.

지금도 이런 저런 모임에 가면 날 보고는 “MBC 왜 그래?” 한다. 오래전부터 들어 온 말이다. 그 때마다 “MBC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응수 했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 허나 문제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한다.

MBC와 문화방송은 하나이다. 아웅다웅 할 게 있으면 노사가 그걸 갖고 함께 벽제화장터로 가 바라 하고싶다. 그리고 협상에 임할 때는 “Cool head and warm heart.”의 자세로 임하고.

끝으로 하얀머리 선배가 검은머리 후배들에게 “Ask not, what your MBC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문화방송”란 말을 남긴다.

그래서 하루속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쁘고,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MBC 문화방송’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Beauty is truth, truth beauty.”-that is all ye(you) know on earth, and all ye need to know. -John Keats-

(아름다운 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답다. 이것을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알고 또 알 필요가 있는 전부이다.)

## 각 부문 새 임원진과 상견례

김회장, 내년 정기총회에 개선안 보고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 당부

김수량 회장과 각부문 부회장, 이사, 그리고 감사등 새 임원진이 3월 9일 (금) 취임후 첫 이사회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회장은 “능력있는 회원들로 이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중심을 잡고 잘해주면 사우회는 발전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한

다”고 말하고 “정기총회와 사우회 카페에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 정기총회때 개선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신대근 회원을 공식중인 보도부문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 사우회보 편집위원 4명 새로 위촉

신임 위원, 김상옥 김승한 신견옥 김세하 임주완(유임) 이용구(유임)

MBC사우회보 제2기 편집위원 7명이 새로 위촉됐다. 3월 9일에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편집인에 백하현 상임 부회장(당연직), 편집위원은 편성제작 부문 김상옥, 보도부문 김승한, 아나운서부문 임주완(유임), 기술부문 김세

하, 업무부문 이용구(유임), 관리부문 신견옥 회원등이다. 편집위원들은 3월 19일 상견례에 이어 23일 첫 모임을 갖고 제11호 사우 회보 제작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편집위원들은 분기별로 회보 발행을 위한 회합을 갖게된다.





## 차 한 잔

### 동의난달 운속미술회 회장 김 상 옥

‘(사)동의난달 운속미술회 회장 김 상옥’이라고 적힌 그의 명함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點字) 인쇄도 되어 있다. 그가 하는 일이 시각장애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동의난달이란, 한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봉사단체입니다. 그 산하에 운속미술회가 있어요.

방송 관계로 오래 전부터 그분들과 알고 지낸 인연으로 2008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만 ‘회장’이지 실무 인력이 없어서 기획, 구성, 섭외 모두 직접 챙기고 있어요. 물론 무보수 봉사죠. 허허”

운속미술회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만든 미술 작품을 모아 일 년에 한번 전시회를 열어준다.

또한 점자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현재 충주성모학교, 청주맹학교, 인천해광학교 등 3개 학교 중, 고등학생 12명에게 연 5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학교를 한군데 더 늘릴 계획이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걸까? 누구나 궁금할 일이다.

“시각장애는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1급부터 어느 정도는 보이는 6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손으로 빚는 조소나 조각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1,2급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림도 그립니다.

색채 쓰는 것을 보면 정상인들 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들만의 독특한 세계가 표현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전문교육을 받은 미술 교사로부터 색채와 색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색에 대한 자기들만의 개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 운속미술회

시각장애인에 장학금 지급

1년에 한번 작품전시회 개최

보지못하니까

느끼지도 못할 것이란 건 편견

따뜻한 관심과 후원 손길 쏟아졌으면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데.

“충주성모학교의 일곱살짜리 허유리는 안암때문에 실명했어요. 탈북하신 분들의 아이라서 미술교육 같은 건 받아 본 적도 없는 아인데도 색채 쓰는 걸 보면 놀라워요. 미술전문가들도 감탄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미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열심히 재미있게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좋아하는 미술을 계속할 수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요”

아까운 재능들이 한갓 손장난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안타깝워서 몇 군데 대학들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시설이나 교수인력 등의 문제로 아직은 이들을 받겠다는 곳이 없다.

“지금까지 세 번의 전시회를 가졌

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MBC본사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인사동의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 으쓱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골의 시각장애아들 작품이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작품 판매는 기대한 것보다 저조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달된 작품료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미술에 대한 애정만큼은 엄청 커졌다. 판매대금 전액이 그대로 본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작품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겁고 신기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재능있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형편이 허락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좋은 탓인지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올해도 전시회를 해야 하는데 좋은 곳은 너무 비싸서 아직 장소도 못 구하고 있으니....”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미술작업하는 일에 조그만 보탬을 주고있을 뿐이다. 사우 여러분의 폭발적인 호응을 기대해 본다.

운속미술회 핫팅!!



▶시각장애인들은 전혀 못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림도 그린다. 대부분은 손으로 빚는 조소나 조각에 힘을 쏟는다.

## ESSAY

## 대학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

극동대학교 교수 문병화(전 MBC미술센터 사장)



문 병 화  
전 MBC미술센터 사장

주변을 둘러보니 퇴직 후 살아가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충실하면서 가족과 재미있게 생활하는 사람, ‘인생은 지금부터’라며 제2의 터전에서 그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냥 친구 및 지인들과 모임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사람 등등.

2008년 3월, MBC미술센터 사장을 끝으로 직장생활 32년을 마감했으니 문화방송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그 동안 회사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어렵잖지만 장미빛깔의 제2인생을 설계했고, 퇴직 후 약 1년간은 훌가분한 기분으로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수소문하는 등 절치부심 하였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

다. 몇 군데 대학에서 이른바 ‘보따리 지식장사’를 하면서 더러 보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겪어 보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방송생활 동안 그럭저럭 박사과정은 수료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 2009년 초, 모 대학의 교수 초빙에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고, 좋은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학위모자라 좋은자리 놓치고 통탄 부랴부랴 박사 학위 취득

새로운 제 2의 삶을 사는데 큰 도움

요즘 대학생 취업관

눈앞 수익 좋으면 최고, 힘들면 아직

이후 부랴부랴 다시 시작하여 2010년 2월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또 다른 도전을 통해 몇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마침내 지난 12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극동대학교의 영상제작학과 전임교수로 제2의 인생을 열수 있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기업문화와는 전혀 다른 대학문화 속에 살면서 과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겪어보지 못했던 점을 많이 느낍니다.

교수란 직업은, 각자 독자적인 영역의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일들이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 역할과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희 세대의 대학생들에 비해 요즘 대학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여 문화, 예술, 학술, 체육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활동적입니다.

한층 여유로워진 삶 덕분에, 약간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각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실이나 실습실 등 학습 환경도 좋아져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 국내적 이슈인 청년실업과 관련된 취업 문제 때문에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교수, 학교 당국까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계열 학생들의 취업은 국내 방송계열 회사들의 채용형태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 성격의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채용이 대부분인 관계로 교육과학부에서 정한 취업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관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른바 ‘평생직장’이

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요즘 학생들은 ‘신분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당장의 수입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직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과거의 교수들은 강의만 잘하면 되었지만 지금의 대학교수들은 강의하랴, 연구하랴, 학생취업문제 고민하랴 역할이 다양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폭력에 의한 스승의 위상 추락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교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아직은 엄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방송 퇴직 후 4년,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삶을 보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기분과 새로운 의욕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 현업을 떠난 지는 몇 년 됐지만 오랜 기간 방송생활에서 익혔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 이전에 정말 보람된 생활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지금의 제 모습은 나름대로 대학교수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모습은 제가 새로운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2의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김호준(보도)1/10 신명수(기술)1/11 권선장(관리)1/13 이석현(편제)1/27  
이선호(보도)1/30 이성해(보도)1/30 강동균(편제)1/31 정보균(관리)3/21

연회비

1월 강철호(11~12) 고병조(12) 고춘호(11~12) 권운성(09~12) 권태규(12) 김강정(13) 김광백(10~11) 김상호(12) 김영재(11~12) 김용빈(12) 김윤근(12) 김은휘(10~11) 김종성(10) 김충남(10~12) 나명수(08~11) 남기두(12) 류근수(12) 맹광호(11) 민경창(12) 민홍식(12~13, 80세납부끝) 박기운(12) 박세림(11~13) 박수명(11) 박순웅(12~13) 박준평(12) 배상호(12) 서정호(12) 선남준(11) 손영조(12) 신명수(11) 신무성(12) 엄웅렬(12) 염영수(12) 오남렬(12) 유순옥(11) 유홍철(12) 윤남현(12) 윤현곤(12~14) 이상원(대구-12) 이영호(12) 이영생(12) 이운하(00~12) 이종철(12~13, 80세납부끝) 이종화(12) 이주열(12, 80세납부끝) 이하결(12) 정동영(대구-12) 정상화(12) 정영환(13~17) 정진도(12) 정형진(12) 조무영(12) 차명륜(12) 최영달(대구-11) 최호철(12) 한영희(11~12) 홍신숙(11~12) 홍이표(12) 황기찬(10~11) 황진환(12) 황윤환(04~11)

2월 강복주(12) 강창우(10) 강효섭(12) 권황택(11) 김광웅(10~12) 김평안(12) 김병수(11~12) 김병택(12) 김부영(12) 김삼량(11~12) 김선희(12) 김영균(11~12) 김영택(11~15) 김원기(12) 김점용(12) 김종수(12) 김채영(12) 김휴선(12) 남궁미(12) 노영인(12) 맹석기(10~12) 박민정(12) 박삼열(12~14) 박연식(12) 박찬순(12) 반주원(12) 백중석(12) 서상규(12) 서은선(12) 송재선(12) 신명현(12) 안병태(12) 안영순(13) 안중순(12) 안주희(12) 안철환(11~12, 80세납부끝) 양남중(12) 엄기원(12) 연규철(13) 오두영(11) 윤풍기(12) 이기선(12) 이기호(09~12) 이명순(12) 이상혁(12) 이성구(12) 이연한(98~12) 이인숙(12) 이용구(12) 이완수(12) 이재영(06~11, 80세납부끝) 이한식(13) 이한익(12) 인우삼(13) 임국희(12) 장두원(11~13, 80세납부끝) 장영준(11) 전지웅(12) 정경태(12) 정명환(12) 정봉일(12) 정승호(12) 정영희(12) 정진(13) 조성식(12) 차기동(12) 최영돈(12) 최영성(13) 최운형(12) 최홍림(12) 최화숙(12) 표찬일(12) 홍순영(12) 홍윤호(13) 황경자(12) 황규봉(14, 80세납부끝)

3월 강현식(12) 김광웅(11~12) 김동한(11~12) 김성한(11~12) 문용수(10~12) 심상수(12) 오영환(10~14) 유무정(12) 윤종옥(13~15) 윤준구(08~12) 이경열(12) 이상림(12) 이중수(12) 임성전(11) 정준모(12) 정태성(12) 정형진(13~17, 80세납부끝) 조규보(10~12) 조병락(12~13) 차종식(12) 황귀철(13~17) 황중휘(11~12)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 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편제

고장석 02-784-5040  
김세영 010-5382-0068 강서구 우장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A 127-302  
김우룡 용산구 서빙고로 67, 101-1403  
이영삼 010-8635-2032  
조부성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LG자이 105-502  
진경현-방영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3 삼운트루아 804호

보도

김강정 031-898-0939 용인시 보정동 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202-802  
김상기(前대전시장) 010-5408-0581  
김흥기 금천구 시흥대로 165길 남서울힐스테이트 105-1102  
이문노 010-7231-9571  
홍기룡 010-9105-2270

관리

강인숙 010-2240-6442  
김영월 010-4400-0130 대전시서구삼천동 국화동성A 104-1003  
나일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백궁동양파라곤 A-1202  
문성수 010-3851-3444

경조사항

경사

팔순 | 김성기(기술)4/11 최인열(기술)4/11 이임생(편제)4/15 안철환(계열)5/07  
박근숙(보도)5/11  
고희 | 인형식(업무)4/05 김종성(대구)4/07 김점용(편제)4/15 김정환(편제)4/24  
박화정(보도)4/25 남기두(대구)5/03 박노훈(전주)5/15 정석진(보도)5/30  
진수웅(기술)5/30 박진홍(편제)6/06 김종수(편제)6/10 황영욱(보도)6/11  
이상원(대구)6/19 최선규(편제)6/20 김삼량(관리)6/21 남궁용영(전주)6/29  
희갑 | 손진우(편제)4/07 박춘우(관리)4/08 안효진(관리)4/10 김동환(기술)4/15  
강현식(편제)4/20 이경열(기술)4/29 이연한(Ann)5/07 이교윤(편제)5/13  
이재은(보도)5/13 최규철(편제)5/13 이운하(업무)5/18 전평국(보도)6/01  
한순애(관리)6/07 문병화(기술)6/09 장근복(관리)6/15 조국환(관리)6/17

결혼

은정기(관리)차남 1/28 연규철(관리)차남 2/04 이종화(대구)장남 2/26  
서정호(대구)3녀 3/10 민창환(편제)장녀 3/17 양승원(기술)차녀 3/18  
안주희(ANN)장녀 4/11 양영철(보도)장남 4/21

부음

홍학표(업무)장모상1/08 김무길(업무)모친상1/17 장영준(보도)장모상1/19  
이창우(편제)장모상1/25 박생섭(편제)장모상1/25 김영택(보도)장모상1/27  
서정훈(보도)부친상2/03 권운성(기술)모친상2/06 양건승(업무)장인상2/17  
윤준구(관리)장모상2/24 양영철(보도)장모상3/07 유태희(관리)장모상3/22  
허경희(관리)부친상3/25 정판식(부산)모친상3/27 윤여중(편제)모친상3/27  
장영효(관리)장인상4/04 이재원(전주)장인상4/07

-김철욱(대구) : 3월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올해 89세. 평양 음악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대구MBC에서 R-TV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 숭의음악당 관장을 지내기도 했다. 1973년에 제1회 대한민국방송상(공로부문)을 수상했다.

신규입회

1/10 金好駿(보도) 010-9105-1261 031-555-8336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그린A 307-1701  
1/13 權善章(관리) 010-9274-5920 032-885-0971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청천푸르지오 104-1104  
1/27 李錫憲(편제) 010-8972-0469 02-6248-6244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A 108-1001  
1/30 李善鎬(보도) 010-5384-0013 02-552-7200  
강남구 대치1동 개포우성A 9-902  
1/31 姜東均(편제) 010-5315-5302  
성동구 성수2가1동 843 서울숲힐스테이트 105-203

연규철 010-2898-9335  
윤종옥 010-5357-7303  
조동호 강서구 화곡동 409-29  
조일동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1-1007)  
한순애 마포구 도화동 도화우성A 13-1008

업무

조성식 강남구 청담동 124-12 디아트 502호  
최태규 용산구 후암동 60-51 (202호)

ANN

남궁미 용산구 이촌1동 426 삼성리버스위트A 104-502  
박민정 02-784-5040  
이지현 010-5451-1018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자이A 103-2004  
황경자 010-9028-8120

전주

권태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5-1 101호  
김대수 010-9013-3627

19대 국회 MBC사우회 회원등 5명 진출

새누리당 심재철(4선), 한선교(3선)  
민주통합당 박영선(3선), 노웅래(재선), 신경민(초선)

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영선 의원등 사우회 회원 을 포함한 MBC 출신 5명이 당선 의 영광을 누렸다. 서울 구로 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한 박영선 의원이 여유있게 당선 돼 3선의원이 된것을 비롯해서 같은 당의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4년만에 재선 에 성공했고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은 거물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을 물리치는 이변을 일으키며 첫 금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이 4선, 한선교(경기 용인병) 의원이 3선의 영광을 안았다.



심재철(새누리)



한선교(새누리)



박영선(민주)



노웅래(민주)



신경민(민주)

한편, 서울 강남 을의 정동영, 부산 중동구의 이해성, 인천 남동 을의 김석진, 천안갑의 전용학, 그리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4번이었던 변용전 의원등은 금배지를 다는데 실패했다.



## 이 사람!

##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봉사하며 살아야지요’



▶그는 매주 5일씩 13년동안 병원을 찾아 다니며 암 환자 13,000여명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 큰 병원을 다니며 하루 2,30명의 환자를 만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에 떠는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주는 게 저의 일이지요.”

영락교회의 안수집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형식 회원. 그는 원래 방송 광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건 1996년 여름, 신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부터였다. 신장을 하나 잘라내고 안심하던 찰나, 1997년 9월 그는 죽음 앞에 섰다.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간에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새벽 3시에 병원에 실려 갔는데 혼수상태로 약 일주일을 보냈고,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하며 가족에게 장례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숨쉬는 송장, 살아있는 시체’라고 표현했다더군요.”

그의 아내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남편을 위해 열

1년 반 동안 암투병

“숨쉬는 송장”이라며 의사도 포기한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선데이 크리스천에서 안수집사로 암환자에 봉사  
힘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는  
그 어떤 약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아

심히 기도했다. 아내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포기했던 의사들이 다시 병실로 달려왔다.

“열흘 넘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 몸이 붓고, 안압이 높아져 눈이 튀어나오고, 황달을 넘어 흑달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부풀었던 배가 홀쭉해지고 숨 쉬는 게 수월해지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차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치는 아니지만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고 1997년 말에 다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한국방송광고공사)에 더 이상 병가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1998년 3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건강이 차츰 호전되던 어느 날, 문득 두려워졌다. 하나님의 기적에 보답하려면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훈련을 받고, 암환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삼성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인 남자 병실이었는데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던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인마. 너 뭐야! 나가’ 라고요.”

이런 험한소리에도 이젠 익숙하다. 호스피스운동의 창시자인 Kubler Ross(미국정신과의사)는 그의 책 「인간과 죽음」에서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를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설파한다.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적대적 행동을 하면 대개 분노단계다. 그가 분노를 표현하

영락교회 안수집사 인형식

도록 받아주면 환자는 편안해 진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는 주의사항이 많다. 의사가 있을 때 처신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예민한 환자들과 대화하는 요령도 있다.

그는 주로 암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을 찾는다.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도에 달할 수 밖에 없다. 불안하고 초조한 이들에게 따뜻한 대화와 기도는 큰힘을 준다. 어떤이는 기쁨의 눈물을 펄펄 쏟기도 한다. 그의 기도와 말 한마디가 환자들 마음에 닿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금은 병원 기독교원목실을 통해서 명찰을 달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니다가 간호사들이 신고해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환자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해도 참 많이 받았고, 말 한 마디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13년째다. 그 동안 수첩에 기록된 환자만도 1만 여명이 넘는다.

“오히려 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퇴원한지가 14년 정도 됐는데 꾸준히 통원치료는 받았지만 병원에 입원 한 번을 안했어요. 환자들을 만나는 게 건강의 비결이 되어버렸지요.”

“1997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안압이 높아져서 왼쪽 눈이 시신경이 망가졌고 시력을 잃었죠. 시력은 없지만 제 눈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사선생님이 권유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눈 안에 실리콘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 1년에 1번 재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1년 만에 재수술을 처음 했어요.”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학적으로 매년 해야 한다는 수술을 11년 만에 하고, 14년간 먹던 공팔 약도 올해 2월부터 끊었다. 물론 추이를 지켜봐야하지만 그는 기적이 계속될 것이란 걸 믿는다. 그리고 그저 하늘이 허락하는 한 환자들을 만나겠다는 생각뿐이다.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종교를 갖게 되지 않았다면, 환자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환자들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싶습니다.”

유혜진 객원기자 eternityjw@naver.com

## 회원동정



조기양(보도)

조기양(보도)

방통심 방송언어특별소위 위원 위촉

극동대학교 교수, 前MBC스포츠 사장. 올 1월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언어특별소위 위원은 8명이며 MBC와 KBS SBS에서 1명씩 그리고 교수 작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범(관리)

이상범(관리)

CTS(기독교TV)자문위원 취임

전MBC미술센터이사, 올 1월초 CTS 기독교TV 자문위원으로 취임했다. 지금은 오케스트라단-오페라단-합창단이 속해있는 CTS 예술단 총괄을 영실장도 겸하고 있다.



윤중보(보도)

윤중보(보도)

국회전문지 「동행」회장에 취임

(주)명보국제항공회장, 前안동MBC 사장. 2월초 국회에서격주로 발행하는 잡지「동행」회장에 취임했다.



유효근(관리)

유효근(관리)

네이버 북카페에 소설 연재

2월 중순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북카페에 소설 「오직그대만이」를 연재하고 있다.

「오직 그대만이」는 고아인 여자가 한 가정에 입양되면서 겪게되는 고난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유효근 회원은 이미 「선녀와 농사꾼」「사랑은 뷰티플」등 2권의 작품을 출간한바 있다.



최성금(관리)

최성금(관리)

유통·물류회사 (주)아신 사장 취임

前MBC플레이비사장. 2월 22일 유통·물류전문업체인 (주)아신 사장으로 취임했다.

아신은 1980년에 설립됐으며 직원 400여명에 도매물류를 비롯해서 유통판매 물류대행 식자재산업 운송서비스를 하는 중견 기업이다.

## 한문 공부방 분당 예수사랑 교회 봄나들이



유희근 회원 휘호 증정식

왼쪽부터 유희근, 권혁화, 조성식, 권오형, 이용구, 조한건, 이건설, 유재석, 박종완, 이영복 목사

사우회 동호회 한문공부방(홍장 이건설)이 3월 15일 성남시 분당의 예수사랑 교회로 봄나들이에 나섰다. 예수사랑 교회 이영복 목사는 이용구회원의 큰아들로 2월 철학박사학위 취득, 축하차 공부방 회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유희근회원의 휘호증정식도 가졌다.

信望愛는 기독교 신자와 서예가들이 서예작품으로 좋아하는 신약성서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이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로 계속된다.

그러다가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끝맺는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